



2018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9회 동아마라톤이 18일 서울 일원에서 펼쳐진다.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풀코스(42.195km) 부문 출전자 중에서는 윌슨 로아냐에 에루페(왼쪽)와 한국 여자마라톤 기대주 김도연(오른쪽)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DB·사진제공 | 대한육상연맹

‘철각의 귀환’ 에루페 ‘여자 황영조’ 김도연

서울국제마라톤서 주목할 선수들

에루페, 지난해 대회 3연패 불발 ‘절치부심’
2시간5분대 벽 돌파·대회 4번째 우승 도전
여자부 김도연, 21년 만에 한국신기록 기대



국내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2018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9회 동아마라톤이 18일 서울 일원에서 펼쳐진다.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등급 대회인 만큼,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끝나는 풀코스(42.195km)에 도전하는 선수들 중에는 주목할 선수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국제마라톤의 사나이’ 윌슨 로아냐에 에루페(30·케냐·청양군청)와 ‘여자 황영조’로 불리는 한국 여자마라톤 기대주 김도연(25·K-water)에게 관심이 모아진다.

에루페는 2012년 대회에서 2시간5분37초로 전체 국내대회를 통틀어 첫 2시간5분대 기록을 세운 ‘철각’이다. 2016년에는 2시간5분13초로 대회 최고기록이자 역시 국내 개최 최고기록을 세우며 대회 2연패를 차지하는 등 서울국제마라톤에서만 세 차례 우승했다. 에루페는 지난해 대회 3연패에 도전했지만 2시간5분54초를 기록한 에이머스 키프루토(26·케냐)에게 완좌를 내줬다. 자신의 최고기록에 크게 못 미친 2시간6분27초로 5위에 그쳤다.

에루페는 키프루토에게 일격을 당한 뒤 자존심 회복을 위해 모국 케냐에서 절치부심하며 훈련에 매진해 왔다. 에루페는 지난해 말부터 케냐 마라톤 훈련지 엘도레트와 이텐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엘도레트는 해발 2000m, 이텐은 해발 2000~3000m로 이뤄진 고지대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엘도레트에서, 30~40km 장거리 훈련은 이텐에서 소화했다. 기압이 낮고 산소가 희박한 고지대에서 훈련하면 체내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 지구력을 키울 수 있다. 에루페는 2시간 3~4분대 선수들과 함께 훈련

하며 스피드도 키웠다. 2시간5분13초의 대회기록을 깨 정상에 다시 서는 게 목표다.

에루페는 한국 마라톤, 특히 동아일보 주최 마라톤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2011년 10월 생애 두 번째 풀코스이자 난생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인 동아일보 경주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9분23초로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이듬해 서울에서 2시간5분37초로 우승하며 단번에 세계적인 선수로 떠올랐다. 2012년 경주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연패에 성공했고 2015년에도 정상에 올랐다.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동아일보 주최 대회에서만 무려 6번 정상에 섰다. 이런 인연으로 에루페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앞두고 귀화를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여전히 귀화의 꿈을 버리지 않은 에루페는 자신의 스승인 오창석 백석대 교수의 도움으로 2016년부터 청양군의 후원도 받고 있다.

에루페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선수가 바로 김도연이다. 21년간 깨지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여자 한국최고기록 경신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김도연의 풀코스 최고기록은 지난해 말 세운 2시간31분24초. 권은주가 1997년 10월 세운 2시간26분12초의 한국기록에는 아직 모자라지만, 올해 2월 4일 일본에서 열린 제72회 가가와 마루가메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 1시간11분0초를 기록해 2009년 임경희가 세웠던 여자 하프마라톤 한국최고기록(1시간11분14초)을 9년 만에 14초 앞당기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도연은 주법이 간결하고 부드러운 효율적으로 달린다. 권은주가 한국최고기록을 세울 당시처럼 상쾌하고 힘이 넘친다. 특히 스피드가 좋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와 일본 도쿠시마 전지훈련에서 스피드와 지구력을 한껏 끌어올려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도연을 ‘여자 황영조’로 부른다. 1991년 동아마라톤에서 첫 풀코스 도전에 나서 3위를 한 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풀코스 4번째 도전 만에 정상에 오른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처럼 폭심이 넘친다는 평가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스포츠종합

‘원조 패럴림픽 영웅’ 한상민의 질주는 계속된다

2002년 한국 동계패럴림픽 첫 메달 전설
알파인 슈퍼대회전·슈퍼복합 완주 감동



14일 강원도 정선알파인경기장.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알파인스키 남자 대회전 1회전 경기를 마치고 대기실로 이동하는 한 선수에게 관중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미소를 지으며 부지런히 두 팔을 움직이던 이 선수의 이름은 한상민(39). 그의 이름과 얼굴이 낮아졌다.

한상민은 한국 동계패럴림픽의 영웅이다. 11일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15km 좌식종목에서 신의현이 동메달을 차지했다는 패자가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세 번째 메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이 역사적인 첫 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한상민이었다. 한상민은 16년 전인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알파인 스키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그의 이름은 장애인 알파인스키를 넘어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계의 전설로 통했다.

한상민은 한 살 때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가 스키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등학교가 되어서였다. 장애인인을 대상으로 한 스키 캠프에 참가했다가 좌식스키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이다. 설원을 질주하는 스피드의 매력에 빠진



16년 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패럴림픽에서 한국에 첫 메달을 선사했던 장애인 스키계의 전설 한상민이 14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알파인스키 대회전 코스를 질주하고 있다.

AP뉴시스

한상민은 자신의 인생을 스키에 걸기로 작정했다. 1996년 장애인 알파인스키 국가대표가 되어 처음으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았다.

하지만 패럴림픽과는 좀처럼 인연이 이어지지 못했다. 2006년 토리노 대회,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모두 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불운을 겪었다. 스포츠계의 큰 관심과 메달에 대한 기대감도 그의 어깨와 심장을 짓눌렀다. 결국 한상민은 2014 소치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말았다.

8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을 위해 평창의 설원에 선 한상민의 얼굴은 밝았다. 11일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좌식경기에서는 레이스를 마친

19명 중 15위, 13일 슈퍼복합 좌식경기에서는 완주한 14명 중 11위를 했다. 은메달리스트 출신의 성적표치고는 초라하지만 한상민은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 완주하고 있다. 슈퍼복합은 완주에 실패한 선수가 16명에 달할 정도로 힘든 경기였다.

어느덧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다. 기량도 체력도 16년 전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무대에서 다시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는 한상민. 원조스타의 전설은 아직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았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4연속 TKO승’ 황인수 “챔피언 차정환 나와라”

양해준·라인재 “붙어보고 싶다” 관심
황인수 “돌은 됐고…타이틀전만 생각”



로드FC 마들급 전선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열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파이터는 ‘무서운 신인’으로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황인수(24·팀 매드)다.

황인수는 2017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신인 파이터다. 소화한 경기는 많지 않지만, 매 출전마다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해 8월에 열린 ‘XI AOMI 로드FC 영전3 35’에서 이종환에게 데뷔전 승리를 거둔 뒤 스데네 폴리브카~박정교~김내철을 차례대로 격파했다. 4경기 모두 1라운드 TKO승을 거두는 빼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황인수의 맹활약은 즉각 베테랑 파이터들의 러브콜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로드FC와 계약을 체결한 ‘헝그리’ 양해준(30·팀파시)과 지난 10일 열린 ‘XIAOMI 로드FC 046’에서 승리를 쟁긴 ‘비보이 파이터’ 라인재(32·팀 코리아 MMA)가 그 주인공들이다.

양해준은 “같은 팀 김내철(팀파시)과 맞붙었던 황인수와 싸워보고 싶다”며 투지를 불태웠다. 최근 6경기 무패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라인재는 “내가 팀매드의 전영준과 차인호를 모두 잡았다. 마찬가지로 팀매드 소속인 황인수까지 잡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황인수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황인수는 돌에게 관심이 없다. 오로지 챔피언벨트를 향한 열망만이 강하다. 그는 ‘미들급 챔피언’ 차정환(34·MMA스토리)에게 당차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황인수는 “내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라인재와 양해준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들어오지도 않는다. 차정환과의 타이틀전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로드FC는 역대 최고의 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ROAD TO A-SOL’을 4강전까지 진행했다. 사밀 자브로프와 만수르 바르나위야 최종 결승에 올랐다. 두 파이터의 대결에서 이긴 승자는 ‘플판왕’ 권아슬과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된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